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경 민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박 은 아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이 경 민

# 이경민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위원장   간호학박사   김정수 (인)

위원   간호학박사   이유미 (인)

위원   간호학박사   박은아 (인)

<목 차>

Abstract .....	iv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용어 정의 .....	5
<b>II. 문헌 고찰</b>	
1.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	7
2.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과 양육효능감 .....	9
<b>III. 연구방법</b>	
1. 연구 설계 .....	11
2. 연구 대상 .....	11
3. 연구 도구 .....	12
4. 자료수집 방법 .....	14
5. 윤리적 고려 .....	15
6. 자료 분석 방법 .....	16

#### IV. 연구결과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	17
2.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 .....	19
3.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 .....	20
4. 미숙아 아버지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	23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	25
6.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6
V. 논의 .....	28
VI. 결론 및 제언 .....	34
참고문헌 .....	36
부록 .....	50
부록 1. 동의서 및 설문지 .....	50
부록 2. IRB 심사결과 신청서 .....	63
부록 3. 양육스트레스 도구 사용 동의 .....	63
부록 4. 애착 도구 사용 동의서 .....	64
부록 5. 양육효능감 도구 사용 동의 .....	65

표목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Father	1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19
Table 3. Degree of Parenting Stress,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22
Table 4. Difference of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24
Table 5. Cor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25
Table 6.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27

**Effects of preterm infants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on parenting efficacy**

Kyoung Min, Lee

Departments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Euna, Park, Ph. D. in Nursing)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f parenting stress and attachment on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The recruitment process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from January 16, 2017 to April 30, 2017. A total of 16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31 copies from the father of the infant who visited the child hospital in U city, 3 copies returned by mail, and 127 copies via the internet community for premature parents. A total of 153 copies were used for the study, with the exception of the unclear 8 copies.

The research tools for this study were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adjusted, standardized, and condensed by Lee, Chung, Park, & Kim(2008) from 'Parenting Stress Index (PSI)' developed by Abidin (1995), Attachment tools developed by Hwang (2005), as well as tool adapted, adjusted and supplemented by Shin (1997) from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developed by Gibaud-Wallston and Wandersman (197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s analysis using SPSS 24.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Parenting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t=2.05$ ,  $p=0.042$ ).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 $r=-0.723$ ,  $p<.001$ ) with parenting stress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ttachment ( $r=0.545$ ,  $p<.001$ ).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fathers with premature infants were parenting stress ( $t=-9.06$ ,  $p<.001$ ), attachment ( $t=3.39$ ,  $p<.001$ ), and more than 30 days of hospitalization period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 $t=2.28$ ,  $p=0.024$ ), respectively.

It is important to arrange for the adjustment, intervention and reduction of appropriate parenting stress for the father in a process in which a child born as a premature infant grows up at home after discharge from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addition, a stable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children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ather's parenting efficacy, which may have a favorable effect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born to premature infants.

Key words: Preterm infant, Father,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ttach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미숙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출생(WHO, 2008) 또는 최종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의 출생(Hong, 2008)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만혼풍조에 따른 산모의 연령증가로 미숙아 출산은 2000년 전체 분만의 3.8%에서 2015년 6.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6). 미숙아의 생존율은 기계적 환기요법의 적용,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을 위한 인공 폐계면활성제의 투입, 총정맥영양법의 도입 등과 같은 집중치료 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어(Patel et al., 2015), 미숙아에 대한 양육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Lakshmanan et al., 2017).

기존의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와 부모역할에 대한 공유현상으로 인해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 역할 등 다양한 역할수행이 기대되고 있다(Yogman, Garfield, & Garfield, 2016). 특히 미숙아의 아버지는 산후초기 건강상의 문제나 산후조리로 인해 미숙아와 접촉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자녀의 의학적 위기상황이나 불확실한 생존가능성 등과 같은 스트레스원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함께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적응해야 한다(Hagen, Iversen, & Svindseth, 2016; Sung, Ahn, & Chang, 2004). 또한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미숙아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입원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

움을 경험하기도 한다(Stefana & Lavelli, 2017).

특히 핵가족화로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활발한 양육활동은 자녀의 성장과 배우자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amb, 2002). 또한 아버지가 양육을 통해 경험하는 효능감은 가족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Pleck & Masciadrelli, 2004).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Ardelt & Eccles, 200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미숙아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양육행동을 실행시켜 나간다(Hess, Tedi, & Hussey-Gardner, 2004).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양육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Lee, 2008),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Jones, Rowe, & Becker, 2009).

미숙아는 출생과 동시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게 되고, 하루 30분씩 두 차례 정도의 제한된 면회로 부모와 자녀는 초기 애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Park, 2007). 출생 직후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와의 애착형성 과정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미숙아들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퇴원하는 경우가 많다(Fowlie & McHaffie, 2004).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미숙아의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연약한 아기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와의 접촉이나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Fegran, Helseth, & Fagermoen, 2008; Joo & Sung, 2009).

지금까지 이루어진 미숙아 아버지에 관한 국내연구로는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애착정도 측정(Kim, 1994), 미숙아 자녀와의 촉각자극(Park, 2004)이나 캥거루 케어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 확인(Kim, 2013), 미숙아와

만삭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지각과 부모스트레스 비교(Kim, 2007), 미숙아 아버지 됨에 대한 질적연구(Park, 2015) 등으로 출생 직후 아버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녀와의 애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외 연구의 경우 미숙아 부모의 경험(Jackson et al., 2003), 미숙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비교(Howe et al., 2014),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Lindberg, Axelsson, & Öhrling, 2007; Lundqvist & Jakobsson, 2003) 등으로, 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한 미숙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자녀를 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퇴원 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후 퇴원한 교정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여 미숙아 아버지를 위한 아동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숙아로 출생한 후 교정연령이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3. 용어 정의

#### 가. 양육스트레스

**이론적 정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닌 누적된 일상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한다(Pyo, 201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Chung, Park, & Kim(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 나. 애착

**이론적 정의:** 애착은 양육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결속을 의미한다(Bowlby, 196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애착은 Hwang(2005)이 개발한 한국형 애착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 다. 양육효능감

**이론적 정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미한다 (Johnston & Mash, 198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II. 문헌고찰

### 1.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자녀가 미숙아로 출생하게 될 경우 부모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Heinemann, Hellström, & Hedberg, 2013)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Franck et al., 2005). 또한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양육하는 것은 이미 출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에게 부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Cater et al., 2005; Ho et al., 2010).

많은 연구들이 미숙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숙아 아버지 역시 산모의 건강문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의료문제들, 아기의 건강변화와 예후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의 부족, 신체적 소모,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Guire et al., 2004). 또한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는 만삭아와 비교하여 성장에 따라 인지적, 언어적 발달의 지연(Pietz et al., 2004), 과잉운동장애(Moster & Markestad, 2008), 행동과 정서적 문제(Bhutta et al., 2002), 학습장애(Kirkegaard et al., 2006) 등의 위험성이 높아 미숙아 아버지는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Park & Lee, 2017).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결국 자녀와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유대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Morisod et al., 2013).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Abidin, 1992),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누적되는 특성을

가진다(Kim, Lee, & Lee, 2009).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심리적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거나, 개인생활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약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Jang, 2012).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관련된 양육효능감과도 연관되어 있다(Ahn & Park, 2002; Choi, 2005).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역할수행 능력을 높여(Han & Oh, 2008),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in & Kim, 2003). 양육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근거한 개념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자신감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0).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역할수행능력에 만족감을 느끼고,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갖는 경우,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상승하고 양육의 질은 상승한다(Kim, Yee, & Chung, 2016).

미숙아를 출산하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감이나 자신감을 방해하여(Jones, Woodhouse, & Rowe, 2007) 양육효능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Jones & Prinz, 2005).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의 퇴원 전과 후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효능감을 측정한 연구에서 퇴원 전 보다 퇴원 후의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부모가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여 오히려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Jones, Rowe, & Becker,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숙아의 부모는 자녀의 출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어머니에 대한 지지자 역할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녀와의 안정적인 관계형성

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양육효능감은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주고,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과 양육효능감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자녀와의 물리적 접촉을 제한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환경, 낯선 아기의 외모, 의료기구, 인큐베이터 등은 자녀와의 애착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Fernandes & Silva, 2015). 부모는 자녀와 분리된 상황에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여(Treyvaud. et al., 2011), 애착 불안정성이 증가됨으로써 양육의 질이 부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Candelaria, Tedi, & Black, 2011).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인 미숙아 부모에 대한 애착 비교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애착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 즉시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Fegran, Helseth, & Fagermoen, 2008). 또한 미숙아의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한 경우의 애착안정성을 비교한 연구(Brown et al., 2010)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맺는 유대관계를 말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Bowlby, 1973).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관계를 형성한 자녀는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과 발달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부정적 발달관계를 지속시킨다(Kim, 2006). 이러한 애착은 영아기와 아동기, 성인기를 지

나서도 계속되는 전 생애 동안의 과정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은 결혼 후 자녀와의 애착형성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Hwang & Jung, 2006).

최근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사회구조와 인식의 변화로 아버지나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ureau et al, 2017; Bretherton 2010). 아버지와 애착은 자녀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Hwang & Jung 2006). 또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형성된 애착은 아버지의 역할 적응에 도움을 주고, 변화된 가족관계를 재구성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Hwang, 2012).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착은 아버지가 어릴 적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Hwang, 2014).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형성한 애착관계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Seo, 2012). 부모가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된 애착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 형성된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여 자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한다(Park, 2009).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자녀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며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상승하게 된다(Copeland & Harbaugh,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숙아의 아버지는 자녀가 출생한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으로 인해 초기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가진다. 하지만 퇴원 후 자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접촉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과 함께 자녀와의 애착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고 퇴원한 교정연령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하고 퇴원한 교정연령 1개월에서 12개월의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 \* 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일반적 특성변인과 주요변인 15개로 입력하여 계산하였을 때 표본수는 139명으로 제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161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명확한 8명을 제외한 총 153부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영아

- 출생 시 재태기간 37주 미만
-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미숙아로 출생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7일 이상 입원
- 퇴원 후 교정 연령 1개월에서 12개월 미만
- 선천적 기형이나 질병이 없는 영아

## 2) 아버지

- 20세 이상
- 영아와 함께 거주 중
-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

##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양육스트레스 36문항, 애착 50문항, 양육효능감 16문항, 일반적 문항 12문항으로 총 1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Chung, Park, & Kim(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SF: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3개 영역,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고통 12문항(부모영역),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부모-자녀 관계 영역),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 12문항(자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s alpha =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나. 애착

아버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wang(2005)이 개발한 한국적 애착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애착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8개 영역,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긍정적 정서 11문항,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7문항, 자기희생적 온정 10문항, 근접추구(분리불안) 4문항, 보호 5문항, 결속(일치성) 6문항, 냉담 4문항, 그리고 기대감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wang(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 다.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는 3개의 영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효능감 9문항, 부모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차원을 측정하는 4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을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근무시간, 월수입,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양육의 도움 유무, 자녀 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미숙아는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주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으로 구성하였다.

###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월 16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시행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U시 소재하는 아동병원 간호부와 진료 부서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실시하였다. 각 진료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설문내용과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방문한 경우 아버지용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어 회수하였다.

둘째, 충분한 대상자 확보를 위해 미숙아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통한 인터넷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우선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 등에 대해 허락을 구한 뒤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인터넷 URL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어 회신을 받았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한 31부, 우편으로 회신 받은 3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한 127부를 회수하여 총 16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명확한 8부는 제외시키고 최종 153부를 사용하였다. 설문이 끝나고 난 뒤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P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승인번호: 1041386-20170116-HR-028-03)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수행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모든 자료는 무기명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 도중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고, 코딩화한 데이터 파일은 암호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는 일정기간 보관 후 연구 종료 시 폐기할 예정이다. 개인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미숙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10 \pm 4.15$ 세로, 29세 이하가 3.9%(6명), 30~39세 76.5%(117명), 40세 이상이 19.6%(30명)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고졸 12.4%(19명), 대졸 68.6%(105명), 대학원졸 19.0%(29명)이었다. 직업은 생산직 12.4%(19명), 서비스직 9.8%(15명), 판매직 9.2%(14명), 사무직 40.5%(62명), 전문직 28.1%(43명)이었고, 근무시간은 평균  $47.67 \pm 10.40$  시간으로, 주 40시간 이하가 49.0%(75명), 주 41시간 이상 50시간이 24.8%(38명), 50시간 초과가 26.2%(40명)이었다.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3.2%(5명), 200~300만원 이하가 38.6%(59명), 300만원 초과가 58.2%(89명)이었다. 미숙아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42.5%(65명), 직업이 없는 경우가 57.5%(88명)로 나타났다.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미숙아의 어머니 혼자 양육을 하는 경우가 48.4%(74명),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41.8%(64명), 양육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9%(9명), 기타가 3.9%(6명)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는 외동 57.5%(88명), 2명 34.0%(52명), 3명 이상이 8.5%(13명)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Fathers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	≤29	6	3.9	36.10±4.15
	30-39	117	76.5	
	≥40	30	19.6	
Education	High school	19	12.4	
	University	105	68.6	
	Graduate school	29	19.0	
Profession	Production	19	12.4	
	Service	15	9.8	
	Sales	14	9.2	
	Office work	62	40.5	
	Professionals	43	28.1	
Working hours (per week)	≤40	75	49.0	47.67±10.40
	41-50	38	24.8	
	>50	40	26.2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5	3.2	
	200-300	59	38.6	
	>300	89	58.2	
Maternal Employment	Employed	65	42.5	
	Unemployed	88	57.5	
A person who helps raise a child	None	74	48.4	
	Grandparents	64	41.8	
	Parenting assistant	9	5.9	
	Etc.	6	3.9	
Number of children	One	88	57.5	
	Two	52	34.0	
	≥ Three	13	8.5	

## 2.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

미숙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49.0%(75명), 여아가 51.0%(78명)이었다. 출생 시 체중은 평균  $1.55 \pm 0.57$ 이며, 999g 이하가 19.6%(30명), 1,000g~1,499g이 58.2%(89명), 1,500g 이상이 22.2%(34명)으로 나타났다. 출생 시 재태기간은 평균  $31.26 \pm 3.54$ 일이며, 25주 미만이 8.5%(13명), 25~35주 이하가 79.7%(122명), 35주 초과가 11.8%(18명)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은 평균  $51.17 \pm 83.42$ 일이며, 30일 미만이 39.9%(61명), 30일 이상이 60.1%(92명)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reterm Infants (N= 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Sex	Male	75	49.0	
	Female	78	51.0	
Birth weight (g)	≤999	30	19.6	
	1,000-1,499	89	58.2	1.55±0.57
	≥1,500	34	22.2	
Gestational age (week)	<25	13	8.5	
	25-35	122	79.7	31.26±3.54
	>35	18	11.8	
Hospitalization period (day)	<30	61	39.9	
	≥30	92	60.1	51.17±83.42

### 3.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2.19 \pm 0.54$ 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모의 고통’ 점수는 최소 1.08점부터 최대 4.67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2.70 \pm 0.72$ 점이었다. ‘까다로운 아동’ 점수는 최소 1.08점부터 최대 4.08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1.97 \pm 0.65$ 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점수는 최소 1.17점부터 최대 3.7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은  $1.92 \pm 0.54$ 점 순으로 나타났다.

애착 점수는 최소 2.86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4.43 \pm 0.46$ 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긍정적 정서’가 최소 3.45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74 \pm 0.36$ 점이었다. ‘접촉추구’가 최소 3.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65 \pm 0.48$ 점이었다. ‘기대감’은 최소 1.67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39 \pm 0.63$ 점이었다. ‘근접추구’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38 \pm 0.70$ 점이었다. ‘결속’은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33 \pm 0.62$ 점이었다. ‘냉담’은 최소 1.00점부터 최대 3.25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4 \pm 0.63$ 점이었다. ‘보호’는 최소 1.8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1 \pm 0.69$ 점이었다. ‘자기희생적 온정’은 최소 1.5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4.21 \pm 0.65$ 점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점수는 최소 1.44점부터 최대 3.82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5점 척도에  $3.56 \pm 0.54$ 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과 흥미' 점수는 최소 2.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83 \pm 0.59$ 점이었다.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좌절감' 점수는 최소 1.00점부터 최대 5.00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61 \pm 0.81$ 점이었다. '부모로서의 효능감' 점수는 최소 1.44점부터 최대 4.22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평점  $3.40 \pm 0.64$ 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Parenting Stress,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N=153)

	Mean±SD	Min-Max
Parenting stress	2.19±0.54	2.00-5.00
Parental distress	2.70±0.72	1.08-4.67
Difficult child	1.97±0.65	1.08-4.08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1.92±0.54	1.17-3.75
Attachment	4.43±0.46	2.86-5.00
Positive emotion	4.74±0.36	3.45-5.00
Contact pursuit	4.65±0.48	3.00-5.00
Expectation	4.39±0.63	1.67-5.00
Separation anxiety	4.38±0.70	1.00-5.00
Conformity	4.33±0.62	2.00-5.00
Indifference	4.24±0.63	1.00-3.25
Protection	4.21±0.69	1.80-5.00
Self-sacrificing warm heart	4.21±0.65	1.50-5.00
Parenting Efficacy	3.56±0.54	1.14-3.82
For parent's role attention and interest	3.83±0.59	2.00-5.00
Parental anxiety and frustration	3.61±0.81	1.00-5.00
Parenting self efficacy	3.40±0.64	1.44-4.22

#### 4. 아버지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입원기간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일수록 양육효능감은 유의하게 높았다( $t=2.05$ ,  $p=0.042$ ). 아버지의 나이, 학력, 직업, 근무시간, 수입, 어머니의 직업유무,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자녀수, 미숙아의 성별, 체중, 재태기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Difference of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53)

Characteristics	Categories	Parenting efficacy	
		Mean±SD	t/F(p)
Age (year)	30-39	3.26±0.76	1.57(0.211)
	≥40	3.60±0.54	
Education	High school	3.48±0.49	0.11(0.892)
	University	3.57±0.57	
	Graduate school	3.55±0.55	
	Production	3.60±0.53	
Profession	Service	3.56±0.65	0.16(0.958)
	Sales	3.57±0.53	
	Office work	3.65±0.43	
	Professionals	3.53±0.49	
		3.58±0.61	
Working hours (per week)	≤40	3.59±0.56	0.16(0.848)
	>50	3.54±0.53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3.54±0.54	0.85(0.430)
	200-300	3.34±0.56	
	>300	3.52±0.62	
Maternal employment	Employe	3.60±0.56	0.72(0.473)
	Unemployed	3.54±0.53	
A person who helps raise a child	None	3.64±0.55	2.06(0.109)
	Grandparents	3.52±0.55	
	Parenting assistant	3.19±0.41	
	Etc.	3.61±0.28	
Number of children	One	3.62±0.49	1.16(0.316)
	Two	3.49±0.62	
	≥ Three	3.45±0.54	
Sex	Male	3.50±0.59	1.46(0.146)
	Female	3.63±0.49	
Birth weight (g)	≤999	3.59±0.55	0.71(0.494)
	1,000-1,499	3.59±0.56	
Gestational age (week)	≥1,500	3.46±0.49	0.08(0.919)
	<25	3.59±0.41	
	25-35	3.57±0.56	
Hospitalization period (day)	>35	3.52±0.52	2.05(0.042)
	<30	3.45±0.51	
	≥30	3.64±0.56	

## 5.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상관관계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0.723$ ,  $p<.001$ )를 보였고, 애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545$ ,  $p<.001$ )를 보였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게 나타났고,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Parenting Stress, Attachment and Parenting Efficacy (N=153)

Variables	Parenting stress	Attachment
	$r(p)$	$r(p)$
Parenting efficacy	$-0.723(<.001)$	$0.545(<.001)$

## 6.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애착 모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투입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0.74-0.98 이었고, 분산팽창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2-1.34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bin Watson D값도 2.13으로 나와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t=-9.06$ ,  $p<.001$ ), 애착( $t=3.39$ ,  $p<.001$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 $t=2.28$ ,  $p=0.0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60.2%였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Affecting Parenting Efficacy

(N=153)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s)	3.50	0.34		10.24	<.001
Hospitalization period †	0.13	0.06	0.12	2.28	0.024
Parenting stress	-0.55	0.06	-0.54	-9.06	<.001
Attachment	0.30	0.08	0.26	3.39	<.001
$R^2 = 0.602$ Adj. $R^2 = 0.589$ F= 44.50( $p < .001$ ) VIF=(1.02-1.34)					

† Dummy variable(Ref. Group): Hospitalization period (< 30)

## V. 논의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 한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나타났다. Kim(2013)의 연구에서 유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3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미숙아 아버지들은 미숙아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양육행동을 지속시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loan, Rowe, & Jones, 2008). 또한 본 연구대상자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은 것(Choi, 2015)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19점으로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미숙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Halpern, Brand, & Malone, 2001)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미숙아를 출산한 신생아기 동안에만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대부분 어머니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일 수도 있다(Harvey, 2013). 따라서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4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애착을 보였는데, Jung(2009)의 영아기 아버지의 애착점수인 4.4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숙아 아버지들은 출생 직후에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는 것(Sullivan, 1999)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미숙아 아버지의 애착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자녀를 처음 품에 안아본 시기가 빠를수록 높았는데(Sullivan, 1999), 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부모의 케어에 대한 비교에서 아버지의 케어는 어머니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rinath et al., 201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숙아가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는 시기부터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간호사는 미숙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의 애착과정을 지지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Franklin, 2006). 따라서 면회시간에 아기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거나, 수유연습, 기저귀 갈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Han, 2012). 또한 미숙아와 아버지의 애착 형성과정에서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병동 집담회 등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간호사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숙아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에서 아버지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근무시간, 수입, 어머니의 직업유무, 양육에 도움을 주는 사람, 자녀의 성별, 자녀의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연령, 직업, 학력, 자녀의 성별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Lee(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어(Kim & Han, 2009),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

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아버지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양육에 관한 지식이나 신념, 자녀에 대한 이해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Jeong, 2009).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애착,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Choi, 2016; Kim & Han, 2009)들과 일치하고 있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양육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Choi, 2016). 이를 위해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을 대중매체나 책을 통해 알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Kim, 2015). 또한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은 자녀의 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Sevigny & Loutzenhiser, 2010)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높아지므로, 직장이나 사회·제도적으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Kwon, 2010), 초과근무나 주말근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업 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Cha, 2014)으로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Yoon(2008)의 유아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양육효능감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녀와의 애착 수준을 높이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2004).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형성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하며(Ahn, 2002; Jeong, 2009), 자녀와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2004).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과 일에 쫓겨 바쁜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Hwang & Hwang,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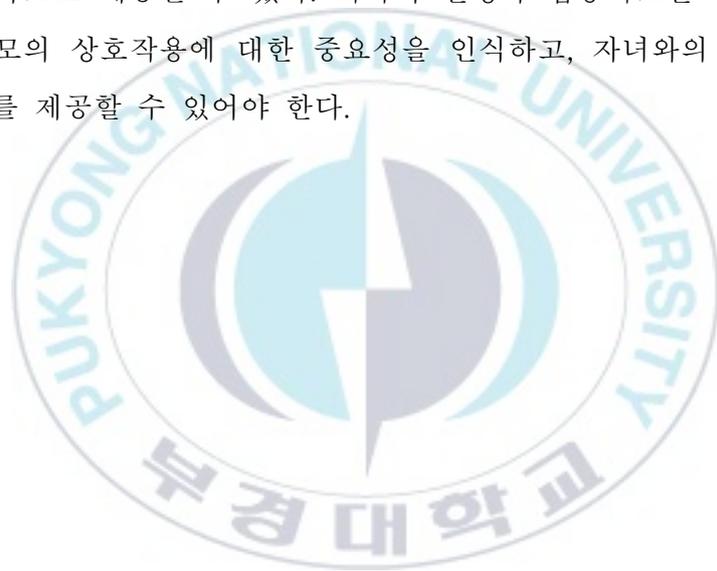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30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의 순으로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아버지가 인지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Lee, 2005), 취학 전 자녀를 둔 아버지(Kim & Han, 2009)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Choi, 2016).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근무시간이 가장 긴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직원의 복지 측면에서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TV, 매스미디어 등에서 양육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Kim, 2008).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자녀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양육효능감과 애착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Jeon(2015)의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

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Seo(2012)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와 신체적 접촉이 많고,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Jung(2009)의 연구에서는 하루 2시간 이상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애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주는 것, 기저귀 갈기나 옷 갈아입히기, 함께 놀아주거나 편안하게 안아 주기(Park, 2004)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으로 나타났다. 미숙아의 입원기간과 관련한 부모나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You(2015)의 연구에서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체중이 적고, 체중에 따른 성장백분위 평균값이 유의하게 낮아 성장발달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숙아 아버지는 작고 연약한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가정에서의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Noh, 2014)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은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를 간호이론적 측면, 간호연구적 측면, 간호실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하여 의학적 위기상황을 경험한 미숙아의 성장과정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확인을 통해 기존의 간호학적 이론을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적 이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다. 간호연구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없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 가정에서 성장 중인 미숙아의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경험과 관련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녀와의 안정된 애착형성과 애착증진 방안에 대한 중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실무적 측면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아버지와 접촉이 퇴원 후 가정에서 미숙아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간호사는 미숙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와의 애착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 모집은 2017년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였고, U시에 위치한 아동병원을 방문한 영아의 아버지에게 31부, 우편으로 회신 받은 3부, 미숙아 부모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127부를 회수하여 총 161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명확한 8부는 제외하여 총 15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Lee 등(2008)이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표준화한 축약형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K-PSI-SF: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Hwang(2005)이 개발한 애착 도구,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부모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 기간( $t=2.05$ ,  $p=0.042$ )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

감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0.723$ ,  $p<.001$ )를 보였고, 애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0.545$ ,  $p<.001$ )를 보였다.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t=-9.06$ ,  $p<.001$ ), 애착( $t=3.39$ ,  $p<.001$ ),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t=2.28$ ,  $p=0.024$ ) 순으로 나타났다.

미숙아로 출생한 자녀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 후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적절한 양육스트레스의 조절과 중재, 감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2.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숙아 아버지의 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혹은 부부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정도나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숙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양육효능감과 애착을 증진시키고, 양육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원 내 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hn, J. Y., & Park, S. Y. (2002).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 53-68.
- Ahn, M. J. (2002). Comparison between infant-father and infant-mo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hutta, A. T., Cleves, M. A., Casey, P. H., Cradock, M. M., & Anand, K. J. (2002). Cognitive and behavioral outcomes of school-aged children who were born preterm: A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6), 728-737.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2010). Father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A

- review.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9-23.
- Brown, G. L., Schoppe Sullivan, S. J., Mangelsdorf, S. C., & Neff, C. (2010). Observed and reported supportive coparenting as predictors of infant - mother and infant - father attachment securit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121-137.
- Bureau, J. F., Martin, J., Yurkowski, K., Schmiedel, S., Quan, J., Moss, E., & Pallanca, D. (2017). Correlates of child - father and child - mother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9(2), 130-150.
- Candelaria, M., Teti, D. M., & Black, M. M. (2011). Multi risk infants: Predicting attachment security from socio demographic, psychosocial, and health risk among African American preterm infa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8), 870-877.
- Carter, J. D., Mulder, R. T., Bartram, A. F., & Darlow, B. A. (2005). Infant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rental response. *British Medical Journal*, 90(2), F109-F113.
- Cha, D. H. (2014). Analysis on the latent classes of paternal motivation-involvement and their determin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H. S. (2005). The mediational role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6), 351-365.
- Choi, J. H. (2016). Studies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fathers in child rearing, *Korea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17*(1), 421-438.

- Choi, S. K.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s on parenting efficacy among fathers with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2*, 13-24
- Copeland, D. B., & Harbaugh, B. L. (2004). Transition of maternal competency of married and single mothers in early parenthood. *The Journal of Perinatal Education, 13*(4), 3-9.
- Fegran, L., Helseth, S., & Fagermoen, M. S. (2008). A comparison of mothers' and fathers' experiences of the attachment proces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6), 810-816.
- Fernandes, N. G., & Silva, E. M. (2015). Parents' experience during the hospitalisation of the preterm infant. *Revista de Enfermagem Referência, 4*(4), 107-115.
- Fowle, P. W., & McHaffie, H. (2004). Supporting parents in the neonatal unit. *British Medical Journal, 329*(7478), 1336-1338.
- Franck, L. S., Cox, S., Allen, A., & Winter, I. (2005). Measuring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related parental str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9*(6), 608-615.
- Franklin, C. (2006). The neonatal nurse's role in parental attachment in the NICU. *Critical Care Nursing Quarterly, 29*(1), 81-85.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Hagen, I. H., Iversen, V. C., & Svindseth, M. F. (2016).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premature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of parents' coping experiences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Bio Med Central Pediatrics, 16*(1), 1-9.
- Halpern, L. F., Brand, K. L., & Malone, A. F. (2001).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weight (VLBW) and full-term infants: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2), 93-104.
- Han, S. Y. (2012). Perceived parental stress and nursing support of fathers with high risk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an, Y. M., & Oh, K. S. (2008). Parental efficacy, parental role-sharing and parental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9*(4), 547-558.
- Harvey, C. M. (2013). The effects of premature birth on a father's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Massachusetts.
- Heinemann, A. B., Hellström W, L., & Hedberg N, K. (2013). Factors affecting parents' presence with their extremely preterm infants

- in a neonatal intensive care room. *Acta Paediatrica*, 102(7), 695-702.
- Hess, C. R., Teti, D. M., & Hussey-Gardner, B. (2004). Self-efficacy and parenting of high-risk infants: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423-437.
- Ho, H. Z., Chen, W. W., Tran, C. N., & Ko, C. T. (2010). Parental involvement in Taiwanese families: Father - mother differences. *Childhood Education*, 86(6), 376 - 381.
- Hong, C. E. (2008). *Textbook of pediatrics, 9th ed.* Seoul: Daehan Printing & Publishing Company.
- Howe, T. H., Sheu, C. F., Wang, T. N., & Hsu, Y. W. (2014).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with very low birth weight preterm infants in early infanc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5(7), 1748-1756.
- Hwang, H. J. (2005).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Hwang, H. J. (2012). A study on father's attachment to infant and related variable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81-99.
- Hwang, H. J., & Jung, O. B. (2006). 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and related factor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3(4), 95-115.

- Hwang, H. S., Kim, H. S., & You, A. Y. (2015).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premature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9*(1), 39-48.
- Hwang, S. S., & Hwang, H. S.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involvement.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5*(1), 71-93.
- Jackson, K., Ternstedt, B. M., & Schollin, J. (2003). From alienation to familiarity: Experiences of mothers and fathers of preterm infa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2), 120-129.
- Jang, Y. A. (2012). The effect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daily str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Community Living Science, 23*(2), 163-175.
- Jeon, E. J. (2015).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 of maternal attachment style to preschool children, parenting efficacy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9*(4), 391-412.
- Jeong, N. O. (2009).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5*(2), 236-244.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L., Rowe, J., & Becker, T. (2009). Appraisal, coping,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in parents of premature infants. *Children's Health Care,*

38(4), 245-262.

- Jones, L., Woodhouse, D., & Rowe, J. (2007). Effective nurse parent communication: A study of parents' perceptions in the NICU environment.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69(1), 206-212.
- Jones, T. L., & Prinz, R. J.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Joo, K. S., & Sung, M. H. (2009). Childhood experiences, paternal attachment and paternal role of primiparous spous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5(3), 205-215.
- Jung, Y. K. (2009). Knowledge of parenting & father-infant attachment in fathers of Inf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im, H. N., & Seo, S. J.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infant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07-329.
- Kim, H. R. (2013). The influence of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parent efficacy up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Y. (1994). The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K. E. (2015).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6(7),

4566-4575.

- Kim, L. J., & Hwang, H. J. (2014). The relationship of father's attachment to infant and paternal attachment of parent attachment in childhood: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spousal support.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4), 55-73.
- Kim, M. J., Yee, B. S., & Chung, M. R. (2016).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actor and partner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on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with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2(3), 1-19.
- Kim, N. H. (2007). Neonatal perception and parental stress in fathers of premature infants at NICU.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Kim, S. A., & Han, Y. J. (2009).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knowledge on child rearing on his parent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55-64.
- Kim, S. J. (2006). A theoretical study on how to establish patterns of attachment in infancy.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4(4), 175-187.
- Kim, S. Y., & Kwon, M. K. (2005). A comparative study on infant's temperament & parenting stress by premature & full-term infant's mother.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8(2), 123-136.
- Kim, M. R., Lee, Y. J., & Lee, J. H. (2009).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tress and leisure constraints of parents who have

-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9(1), 366-375.
- Kim, S. Y. (2008).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rkegaard, I., Obel, C., Hedegaard, M., & Henriksen, T. B. (2006). Gestational age and birth weight in relation to school performance of 10-year-old children: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born after 32 completed weeks. *Pediatrics*, 118(4), 1600-1606.
- Kwon, H. J. (2010). The influence of paternal involvement on the satisfaction and efficiency of father's rol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formation of intimacy with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0(4), 87-106.
- Lakshmanan, A., Agni, M., Lieu, T., Fleegler, E., Kipke, M., Friedlich, P., et al. (2017). The impact of preterm birth <37 weeks on parents and families: A cross-sectional study in the 2 years after discharge from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5(1), 1-13.
- Lamb, M. E. (2002). Infant-father attachments and their impact on child development.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ee, K. S., Chung, K. M., Park, J. A., & Kim, H. J. (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K-PSI-SF).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3), 363-377.

- Lee, S. K. (2005). The effect of work-father role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Y. W. (2008).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measuring mother and father shared caregiving.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2(2), 189-210.
- Lindberg, B., Axelsson, K., & Öhrling, K. (2007). The birth of premature infants: Experiences from the fathers' perspective. *Journal of Neonatal Nursing*, 13(4), 142-149.
- Lundqvist, P., & Jakobsson, L. (2003). Swedish men's experiences of becoming fathers to their preterm infants. *Neonatal Network*, 22(6), 25-31.
- McGuire, W., Henderson, G., & Fowlie, P. W. (2004). ABC of preterm birth: Feeding the preterm infant. *British Medical Journal*, 329(7476), 1227-1230.
- Morisod-Harari, M., Borghini, A., Hohlfeld, P., Forcada-Guex, M., & Muller-Nix, C. (2013). Influence of prenatal hospitalization on parental stressful experience in the case of a premature birth. *Europe PubMed Central*, 42(1), 64-70.
- Moster, D., Lie, R. T., & Markestad, T. (2008). Long-term medic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preterm birth.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9(3), 262-273.
- Noh, S. H.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athers' self-efficacy o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The mediation effect of

- parenting invol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4(3), 45-59.
- Park, I. T. (2007). Early neonatal perception and attachment behavior in mothers of normal infants and of preterm infa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3(2), 137-148.
- Park, J. E. (2015). Becoming a father of preterm infants: Cope with by belie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Park, J. E., & Lee, B. S. (2017). Experience of becoming a father of a high risk premature infa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2), 277-288.
- Park, S. Y. (2004). The effects of father's tactile stimulation on self-confidence and attachment behaviors in caring premature bab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ark, K. H. (2009). The relations between teachers' attachment types and self-efficacy, and their interaction with children in nurse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Patel, R. M., Kandefer, S., Walsh, M. C., Bell, E. F., Carlo, W. A., Laptook, A. R., et al. (2015). Causes and timing of death in extremely premature infants from 2000 through 2011.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72(4), 331-340.
- Pietz, J., Peter, J., Graf, R., Rauterberg-Ruland, I., Rupp, A., Sontheimer, D., et al. (2004). Physical growth and neurodevelopmental outcome of nonhandicapped low-risk children born preterm. *Early Human*

*Development*, 79(2), 131-143.

- Pleck, J. H., & Masciadrelli, B. P. (2004). Paternal involvement by U. S. residential fathers: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4th ed., pp. 222-271). New Jersey: Wiley.
- Pyo, Y. K. (2012). The relations among nurtural stress, and a mother's perception of a father's participation and nurtur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Seo, S. J. (2004). Maternal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quality of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4), 11-27.
- Sevigny, P. R., & Loutzenhiser, L. (2010). Predictors of parenting self 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6(2), 179-189.
- Shin, S. J. (1997). Effects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in, Y. J., & Kim, H. S. (2003). Parent efficacy as an applicable concept of andragogy: Implications for disabled children's parent education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1), 59-84.
- Srinath, B. K., Shah, J., Kumar, P., & Shah, P. S. (2016). Kangaroo care by fathers and mothers: Comparison of physiological and stress responses in preterm infants. *Journal of Perinatology*, 36(5), 401-404.
- Sloan, K., Rowe, J., & Jones, L. (2008). Stress and coping in fathers

- following the birth of a preterm infant. *Journal of Neonatal Nursing*, 14(4), 108-115.
- Statistics Korea. (2015).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
- Stefana, A., & Lavelli, M. (2017). Parental engagement and early interactions with preterm infants during the stay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rotocol of a mixed-method and longitudinal study. *British Medical Journal*, 7(2), 1-9.
- Sullivan, J. R. (1999). Development of father-infant attachment in fathers of preterm infants. *Neonatal network*, 18(7), 33-39.
- Sung, M. H., Ahn, R. S., & Chang, M. S. (2004).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of father of high-risk infa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0(3), 251-261.
- Treyvaud, K., Doyle, L. W., Lee, K. J., Roberts, G., Cheong, J. L., Inder, T. E., et al. (2011). Family functioning, burden and parenting stress 2 years after very preterm birth. *Early Human Development*, 87(6), 427-43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Retrieved from <http://www.who.int/whosis/en/>
- Yogman, M., Garfield, C. F., & Garfield, M. D. (2016). Fathers' roles in the care and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role of pediatricians. *Pediatrics*, 138(1), 3-15.
- Yoon, M. (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non maternal care experience and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mother/fath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Yoon, J. W.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양육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설문지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읽어보시고 생각 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빠진 문항은 연구 자료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바랍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본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 처리 할 것이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이경민 드림

## I. 일반적 특성

※다음은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해당하는 곳에 답하거나 표시해 주세요.

1.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2. 교육 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졸이상 ④ 대학원졸

3.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생산직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② 서비스직 (음식점, 숙박업, 조리사, 건물관리인, 소방관, 경찰관 등)  
③ 판매직 (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원 등)  
④ 사무직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⑤ 전문직 (교수, 교사, 판사, 의사, 연구원, 군인, 예술인 등)  
⑥ 기타 \_\_\_\_\_

4.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근무의 형태는 주간 혹은 교대 근무이십니까?

주( )시간 , (주간 /교대)

5. 월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⑥ 500만원 이상

6. 어머니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7. 현재 양육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ex. 조부모, 도우미 이모)

※다음은 영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해당하는 곳에 답하거나 표시  
해 주세요.

8. 현재 자녀의 수와 영아의 출생 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 ) 명 ( ) 번째

9. 영아의 성별, 출생 시 주수는 얼마입니까?

(남/여) 출생 시: ( ) 주 ( ) 일

10. 영아의 출생 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재원기간과 체중은 얼마입니까?

입원기간: ( ) 일 / 출생 시 몸무게; ( ) g

11. 영아의 현재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12. 영아의 현재 교정연령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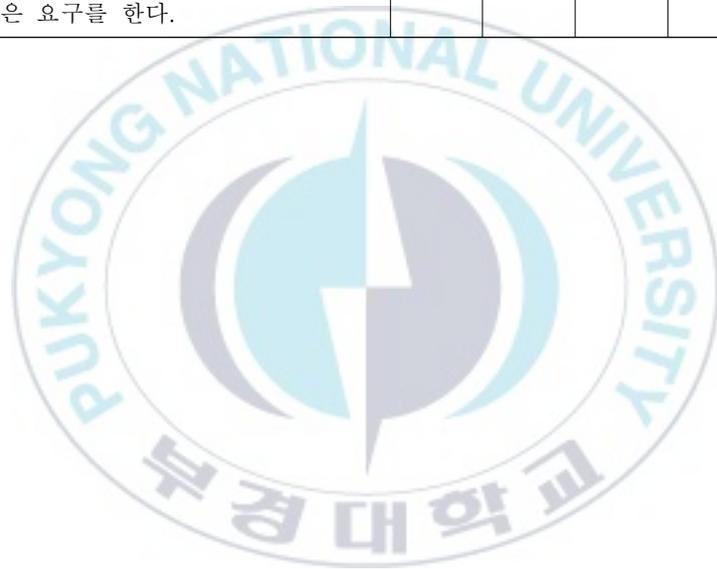
\*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변해 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2	예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다.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째째하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운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11	예전만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12	예전만큼 일을 즐기지 않는다.					
13	우리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대체로 우리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18	우리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19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만큼 웃는 것 같지 않다.					
20	우리 아이는 내 기대만큼 어떤 일을 잘해내지 못한다.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매우 어려워한다.					
22	내가 느끼기에 나는 ① 부모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 ② 부모가 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③ 보통 부모이다. ④ 보통 부모보다 조금 낫다. ⑤ 매우 좋은 부모이다.					
23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4	가끔씩 아이는 나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자주 보채는 것 같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27	우리아이는 매우 감정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시킨다.					
31	우리아이는 수면습관과 식사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32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그만 두게 한 것이 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낀다. ② 생각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낀다. ③ 생각한 만큼 어렵다고 느낀다. ④ 생각보다 다소 쉽다고 느낀다. ⑤ 생각보다 훨씬 쉽다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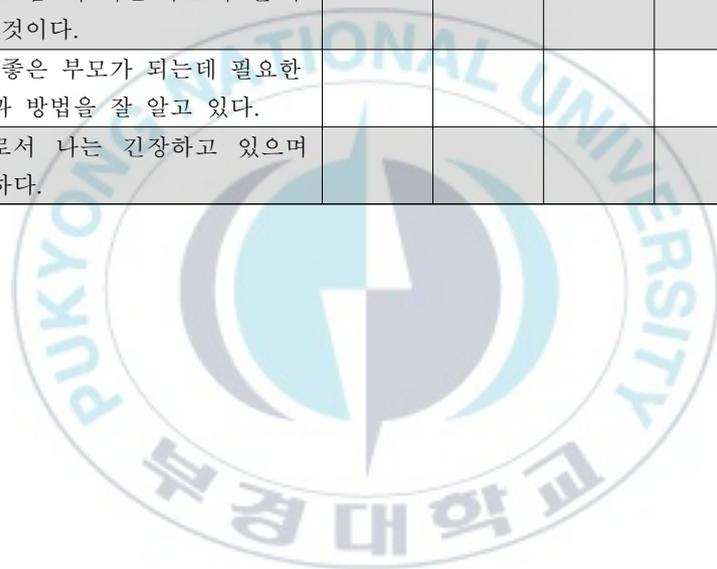
33	<p>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운다. 방해한다. 싸운다. 등)이 몇 가지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p> <p>① 1-3개 ② 4-5개 ③ 6-7개 ④ 8-9개 ⑤ 10개 이상</p>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우리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내게 더 많은 요구를 한다.					



\* 다음은 아버지의 양육 효능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팬클럽 부모라고 생각한다.					
8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9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12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 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14	내가 부모가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6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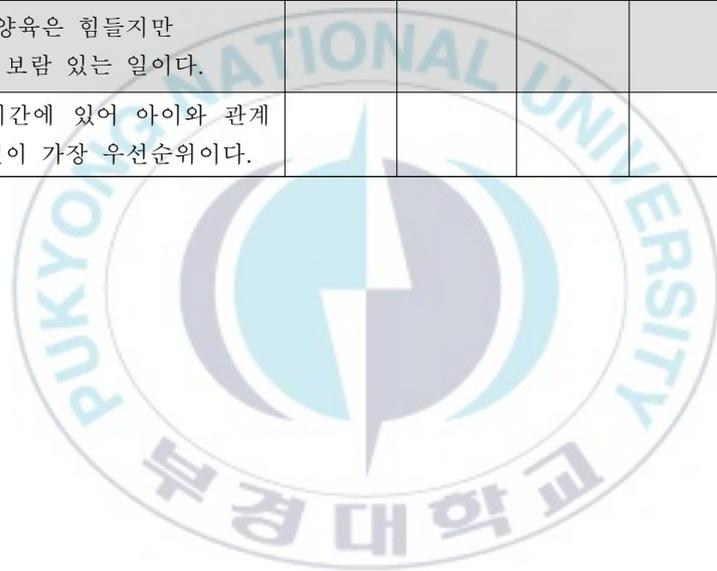
\* 다음은 아버지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답해 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2	내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3	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4	나는 아이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5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					
6	나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7	내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즐겁다.					
8	내 아이 또래의 다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내 아이가 생각난다.					
9	나는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					
10	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11	좋은 물건 (장난감, 옷, 아이용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난다.					
12	나는 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길 좋아한다.					
13	나는 내 아이와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아이에게 뽀뽀해 주는 것을 즐긴다.					
15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6	나는 내 아이를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17	나는 내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8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행복감을 느낀다.					
19	내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예쁘다.					
20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21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22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다.					
23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면 일어난다.					
24	아이가 기운이 없으면 나도 속상하고 우울하다.					
25	나는 내 아이의 대변도 예뻐 보인다.					
26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27	나는 내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28	아이로 인해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다.					
29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된다.					
30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생각을 자주 한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31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 생각에 가능한 빨리 오려고 노력한다.					
32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					
33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할 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보곤 한다.					
34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 해준다.					
35	나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					
36	나는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이 가장 많이 간다.					
37	내 식사 보다 아이 식사(우유, 이유식) 준비에 더 신경이 쓰인다.					
38	용알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응답) 해준다.					
39	아이와 나는 한 몸 같이 느껴진다.					
40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41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같이 반응(응답)해준다.					
42	나는 내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43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모습이나 울음소리)는 금방 알 수 있다.					
44	솔직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45	나는 내 아이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46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땐, 솔직히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					
47	피곤할 땐,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48	나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49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50	내 시간에 있어 아이와 관계된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부록 2]

[별지 제2호 서식]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제9조 관련)

주소 :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전화 : 051-629-5223 fax : 051-629-5234

문서번호	1041386-20170116 -HR-028-03	발송일자	2017. 1. 16.(월)
연구과제명	미숙아로 출생한 영아를 둔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부성애착이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이경민	소속	간호학과
IRB 심사기간	2017. 1. 5.(목) ~ 1. 16.(월)		
심사결과	승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정승인 <input type="checkbox"/>	보완 <input type="checkbox"/> 부결 <input type="checkbox"/>
총 연구기간	승인일 ~ 2018. 1. 15.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승인일부터 2018. 1. 15.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li> <li>○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li> </ul>	
심사내용			
심사의견	· 민감한 설문문항에 대한 유의 바람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부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직인)



### [부록 3] 양육스트레스 도구 사용 동의서

☆ RE: 안녕하세요. 논문 도구 승인으로 메일 보냅니다. 

보낸사람 ☆정경미 <stj@pu.ac.kr>  
받는사람 이경민 <ikm@pu.ac.kr>

요청한 도구는 학지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구용이면 단축형 PSI-SF 사용을 권합니다.  
좋은 연구하기 바랍니다.

정경미 드림

### [부록 4] 애착 도구 사용 동의서

☆ [RE]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보낸사람 ☆황현주  
받는사람

선생님의 논문에 제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논문 쓰시길 바랍니다.

2016.12.22

황현주드림

[부록 5] 양육효능감 도구 사용 동의서

☆ RE: 안녕하세요니까, 논문 도구 승인으로 메일 보냅니다. @

보낸사람 ☆shiin  
받는사람 이경민

예, 번안된 PSOC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속재 드림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이경민

받는사람: sjshiin

날짜: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16시 08분 32초 +0900

제목: 안녕하세요니까, 논문 도구 승인으로 메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부경대학교 간호학 석사 재학중인 이경민 입니다.

이번에 석사 논문으로 미숙아 아버지의 양육효능감에 대해 쓰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번역하신 PSOC 도구를 제 논문에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저의 논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부탁 드리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이경민 올림